“안철수 ‘새정치’와 박지원 ‘구정치’ 합쳐 집권 가능성 열겠다”

야당 대표에 듣는다 …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인터뷰=임동욱 서울취재본부 부본부장

“세상이 나를 조롱한다 해도 호남의 가치와 몫을 찾는다면 대선을 앞두고 어떠한 가시밭길이라도 가겠다.”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지원 원내대표는 단호했다. 불굴의 투지로 위기 국면을 극복, 국민의당의 집권의 길을 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18일 국회 본청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벌써부터 야권 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패배주의라고 정의했다. 민심이 요구하는 길을 걸으면서 수권정당으로서 비전을 마련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였다. 정권 창출을 위해 정치 일생을 불사르겠다는 결연한 의지도 나타냈다. 내년 대선과 관련, 일단 다자구도로 진행되면서 선거 막판, 민심의 거대한 힘에 의해 대선 구도가 정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 국민의당 현재 상황은.

▲지난 총선 때 허허벌판에 텐트 하나 쳐놓고 총선 승리를 이끌었다. 이것은 호남과 안철수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이후 당의 체제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총선 홍보비 파동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안철수의 ‘새정치’와 박지원의 ‘구정치’를 합쳐서 국민의당 집권 가능성을 열어가겠다.

-시급한 현안은.

▲국민은 일하는 국민의당을 요구하고 있다. 38명의 의원들이 단결해서 민생 경제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철저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한편으로는 급조한 텐트를 거두고 땅을 파서 당의 골격을 갖추고 당 체제를 굳건히 해야 한다. 비대위를 하루빨리 청산하고 당을 정상화, 제3당의 위상을 갖추고 대선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급선무다.

-당의 체제 정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

▲전국적으로 168개 지역위원장을 선임했다. 나머지 지역은 공모를 다시 할 것이다. 좋은 인재를 모시는데 힘을 쓰겠다. 현재 당원은 15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00만명 이상의 당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체제 정비는 올해 연말에나 가능할 것이다.

-호남민심을 어떻게 읽고 있나.

▲아직까지 지난 총선 민심을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국민의당이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해 비판적 지지를 하고 있다고 본다. 아직, 호남 민심은 국민의당과 안철수에게 기회를 주는 흐름은 강하게 형성돼 있다.

-인사·예산·정책 등 정부의 호남 차별을 강력 비판하고 있는데.

▲정말 해도 너무한다. 과거에는 보직은 나쁘더라도 구색을 맞추는 시늉이라도 했다. 요즘은 아예 (호남 인맥의) 씨를 말린다. 대장 8명, 15명의 장성 진급자 중에도 호남은 한 명도 없다. 국정원의 국내 담당 차장 밑에 5개 국장이 있는데 모두 TK(대구·경북) 출신이다.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문제 제기에 나서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패권주의를 극복했다고 보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친문(친 문재인) 패권주의는 여전한 것 같다.

-야권 대선 주자의 확장성 측면에서 더민주의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를 평가한다면

▲안 전 대표의 확장성이 더 크다. 야권의 뿌리인 호남의 지지 없는 야권 대선 후보의 승리는 없기 때문이다. 문 전 대표는 자기가 대권·당권을 쥐면 호남이 과거처럼 무조건 90% 지지해줄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호남에서 참패했다. 특히, 총선 이후의 문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 호남 민심의 실망은 더 깊어졌다. 하지만 안 전 대표도 안주하면 안 된다. 더 노력하고 호남 민심의 요구가 무엇인지 찾아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는 한편, 비호남권 외연 확대를 위해서 나가야 한다.

> “
> **손학규 전 대표 합류땐**
> **대선 흥행의 장 될 것**
>
> **더민주 친문 패권주의 여전**
> **대선 일단 다자구조로 갈것**
>
> **호남 미래 위해서라면**
> **당권·대선후보 마다 안해**
>
> **대장 호남출신 한명도 없어**
> **호남 軍 인맥 씨 마른다**
> ”

-대선을 앞두고 야권통합 가능성 있다고 보나.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총선 민의를 저버리고 역행하는 것이다. 지금 통합을 얘기하면 국민의당은 소멸의 길로 갈 수 있다. 야권은 총선 민의에 따라 일단 다자구도로 갈 것이다. 내년 5~6월이면 대선 후보가 결정되고 7~9월에 국민의 검증을 받을 것이다. 이때 체력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될 것이다. 내년 10~11월이면 국민의 선택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 국민의 힘으로 뭔가 이뤄지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위적인 (야권통합은) 없다.

-다자구도에서 대선 승리가 가능하다고 보나.

▲그것은 누구도 모른다. 지난 총선에서 보았듯, 분열해서 승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정치학자나 언론이 정리하고 예견할 수 없다고 본다. 결국 국민이 결정할 것이다.

-호남을 중심으로 연립정부론이 나오는데.

▲지난 총선 전부터 계속해서 호남 참여 연정을 부르짖었다. 호남이 독자적으로 집권할 수 있으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안철수 전 대표에게도 호남의 가치와 몫을 요구해야 한다. 과거 노무현(대통령)에 90%이상 표를 주면서도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어떻게 됐나.

-당 후보한테 호남의 몫을 요구할 수 있나. 방법론은.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다. 호남의 가치와 몫을 가져오지 않으면 호남 민심의 90% 이상 결집하기 어렵다. 특히, 호남의 지지 없이는 야권의 대선 승리가 없다는 점에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과거 JP(김종필)는 2~5%의 지지로 DJP(김대중+김종필)연대를 성사, 50% 이상의 지분을 보상 받았다.

-국민의당이 소수정당인데 정권창출이 가능한가.

▲우리가 캐스팅보터가 아니라 선도정당이다. 왜 불가능하다는 패배주의에 빠져야 하나. 충분히 집권 가능하다. 정권 창출 이후에는 민심에 따라 정계개편 같은 것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의당 정권 창출의 근거는.

▲(지난 총선에서) 야당의 뿌리인 호남에서 승리했고 비호남권에서도 정당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 호남의 단결과 외연확대의 길을 나가면 정권 창출을 이룰 수 있다. 호남의 단결을 위해서 제 역할을 하겠다. 안철수가 됐건 누가 됐건 우리 국민의당의 대통령 후보는 외연확대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손학규 전 대표의 국민의당 합류를 희망했는데.

▲손 전 대표가 결정할 문제이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이미 국민의당 합류를 제안했다. 안 전 대표는 자신이 대선 후보가 꼭 돼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손 전 대표와 같은 사람과 강한 경쟁이 있어야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손 전 대표가 더민주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과거 친노에게 어떻게 당했나. 모바일투표에 어떻게 당했나. 같은 실수를 안 하리라고 본다. 그런다고 장외의 제4세력 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원내교섭단체 구성도 안 된다. 열린 정당인 국민의당에서 당당하게 경쟁하는 것이 좋다.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 준다는 것을 약속한다.

-총선 이후 외연 확대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총선 이후, 홍보비 파동 등의 시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야당의 외연 확대는 항상 총선 때나 대선 때 이뤄진다. 우리 당이 4·13총선 승리 이후, 바로 체제를 정비해서 당원 모집을 했고 지구당위원장 공모를 했고 인재영입을 했다고 한다면 달라졌을 것이다.

-사드배치 반대가 당론인데 해법은,

▲해법은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하면 나온다. 그러나 안보를 위해서도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만일 사드 배치가 이뤄지면 한미일 블럭에 맞서 북중러 블록이 형성된다.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행동을,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 사드 배치는 북한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지 못한다. 수도권은 (사드) 방위 대상이 아니다. 중국 자극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도 악재다.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보나.

▲굴복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과 청와대가 결정했다. 외교부장관은 반대를 했고 국방장관은 몰랐다. 그렇게 보고 있다.

- 개헌에 대한 입장은

▲찬성한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물꼬를 트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국회내에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국민 여론을 좀 더 집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 박지원의 각오는.

▲국민의당이 집권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치겠다. 호남의 미래를 위해서 대통령 후보도, 당권 후보도 불사하겠다. 호남의 독자 집권의 길이 있다고 하면 대권에 도전할 것이고 정권교체 길에 있어서 호남 참여 연정론에 무게가 실리면 당권에 도전할 것이다.

/정리=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